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頻發하는京軌事故
—關係當局의責任如何—

一

十九日午後六時頃 [illegible]町에서 京城軌道株式會社 客車와 同會社貨物車와 衝突하야 二十二名의 重輕傷者를내인 大慘事가잇섯다. 事件顚末은 前記客車가 驛을 出發, 貨車를 지나 往十里로 向하야 前記場所에 臨하엿슬때에 往十里驛(同會社)에停車中이든 荷物車가 뒤로밀리어서 相互衝突하게된것이다. 單純하게 이러케만말하면 어쩟든 不可抗力으로 생각될는지도 모르나 其實인즉 從業員의 注意와 會社側의 設備만充分하다면 이런事故는 未然에 防止할수잇섯다는 點에 今回慘事의 重大性이잇는것이다.

二

前記貨物車에는 運轉手가잇섯다. 運轉手가 잇섯슴에 不拘하고 車輛이 뒤거름지게된것은 『브레키』이 말을듯지안흔데 原因이잇다한다. 客車運轉手로 말하면 荷物車의 突然한後退에 대처 停車할따임이 업섯슬는지모른다. 勿論 이것은 實情問題요 또技術問題이므로 그點에는 言及하려하지안는다. 如何間이것이 事實이라면 兩運轉手의 立場으로본다면 不可抗力일는지모른다. 그러나 停車中의 車輛이 제멋대로 뒤거름치게된다든가 또 뒤거름치더래도 다른軌道로가지 안코 方今客車가 通行하는 本線으로 드러가게된다는것은 아무리 好意的으로 解釋하더래도 從業員의 失手가아니라면 確實히 이會社의 設備不充分을 暴露한것이라 아니할수업다.

三

『京軌』는 再昨年三月에 連絡업는 無軌道的運轉에 基因한 列車衝突로 京師生徒 三十五名의 死傷者를내인 會社이다. 吾人은 當時에 이미 本欄을 通하야 그 事故가 同會社從業員의 不注意와 設備不充分에 基因한것임을 指摘하고 會社當局에 警告하는 同時에 監督當局의 徹底한監督을 要請한배 잇섯거니와 때로부터 二年未滿의 今日에 또다시 가튼會社의 列車가 서로衝突하야 이와가튼 稀有한 大事故를 내게되엿다는것은 京軌當局의 誠意不足을 暴露한것임은 勿論 監督當局의 監督不充分을 意味하는것으로 이事故에 對한 社會的輿論은 決코 輕視할수업는것이다.

四

大京城의 郊外發展에 伴하야 京軌沿線이 漸漸 繁榮하야가고 따라서 이線路를 利用하는 乘客도 날로 增加되는터이다 이러한 情勢下에 交通의 重責을 마튼 京軌에서 二三十名의 死傷者를내는 大事故를 隔年으로 내대서야 어찌 市民이 安心하고 이交通機關을 利用할수잇슬것인가? 近日 乘客은 輻輳하는데 不拘하고 單線인데다가 車輛은 까솔린車 電車合하야 五輛밧게업서서 恒常 定員超過의 無理를하고 車輛도 京電가튼데서 이미廢物化한것을 헐값으로 購入使用하므로 事故頻發은 必然的歸結로 되어잇는터이다.

五

都市生活의 複雜化와 運輸機關의 機械化에따라 交通事故가 增加되는것은 어느程度로는 必然的 趨勢로볼수잇스나 兩回에 亘한 京軌大事故로 말하면 決코 不可抗力에 依한것이아니오 旣述한바와가티 從業員의 注意와 會社側의 設備만 完備하면 [illegible] 事故이니라 [illegible]

空陸兩軍猛襲으로 敗走敵山地로遁入
包圍殲滅陣漸次壓縮

【北京二十一日發同盟】 徐州南方地區에서열린 敗敵掃蕩戰은 疾風迅雷的으로 進行되어 我軍은 漸次 包圍線을 壓縮하고잇는데 昨二十日午後 山東省以南地區에서는 徐州南方潘塘鎭、前程、賈山集其他의 線을 그리고 台兒莊方面으로부터 南下한 部隊는 徐州側의 線에 達하야 다시 猛烈한 攻擊을 繼續하고잇다

【○○基地二十一日發同盟】 徐州東南方의 高古山、龜山、打虎山等 山嶺으로 逃走한 敵十數萬을 迂回한 ○○部隊及 宿縣으로부터 北進한 齋藤部隊及北支로부터 南下한快速○○部隊는 二十一日午前六時 湖北의 大平原으로 一擧에 行動을 이르켜 南北兩線軍密接한連擊下에 實現된 새로운殲滅戰은 剛烈으로 効果를 擧하야 同午前十一時까지는 約三萬餘를 殲하고 다시 其包圍陣을 壓縮하고잇다 敗兵은 我荒鷲의 猛擊과地上部隊의 猛襲으로 두더쥐와가티 山內로 潛入하야 我軍의 殲滅又는 自滅을기다릴뿐이다 午前十時十五分 空中偵察에 依하면 敵은 谷間과 谷間을 左右로 逃亡하고잇는데 我地上部隊의 砲擊은 一彈一彈 敵密集部隊에 命中하고잇다

連雲港占領으로 徐州會戰急轉回

【上海二十一日發同盟】 電光石火의 作戰으로 南北支那沿岸의 要衝을 모주리 占領하야 致命的打擊을 與하면서 活躍을 繼續하는 我海軍은 二十日朝 再次 果敢한 敵前上陸을 決行하야 一擧에連雲港을 占領하엿다 同港은 背後十哩의 地點에 海州를 隔하여잇는 隴海線의 起點인데 今次 事變當初부터 支那軍은 손빨리 海州 連雲港內 一帶에陣地를構築하고我軍의上陸에對備하엿스나 數回에亘한 我海軍機의猛爆과地上部隊의 神速한 進擊으로 벌서動搖하기 始作하야 守備隊는 今月上旬 棧橋를 破壞하고 連雲港正面의 東連島側水路에는 數十隻의 汽船을擊沈시켜完全히 이를封鎖하엿다 同港背後의 峨峨한 山上에는 더욱軍事施設을 行하고 徐州方面으로부터 潰走하는 敵敗殘兵은 同港附近의殘留部隊와合하야必死의抵抗을 試하려하엿스나 손빨리 我軍에게 制壓되고 東進하는 敵主力部隊도 忽然 腹背로부터 我邀擊을 밧게되엿다 그리고 支那軍에게 破壞된 海州까지 十哩의 鐵道는 我軍의손으로 即時 復舊될터인바 이것이 實現되면 同港으로부터 隴海線까지의 軍需品 其他 武器의 奧地輸送은 極히 自由롭게되고 大陸의 腹部를 橫斷하는 兵站線의 大動脈도 玆에 我軍手中에 들게되엿다

山西敵頑强抵抗 ○○部隊攻擊前進

【龍山師團發表】 二十日朝에이르러 侯馬鎭附近으로부터 擊退되어 山地方面으로 退却한 敵은 第八師第十師及第九十六師等 中央直係軍으로 스사로그 精銳를 자랑하면서 旣往戰鬪에잇서 일즉보지못하든 抗戰을 試한者로 退却에際하여도 各處村落에停止하야 抵抗하고잇다 ○○部隊는 果敢히이를 攻擊하야 進擊을 續行하는中이다

果敢한空爆에 孫連仲慘死

【○○二十一日發同盟】 潰走하는 殘敵을 追擊하야 連日果敢한爆擊을 敢行하고잇는 我高橋部隊는 徐州戰線右翼地區에 遁走한 孫連仲이 徐州南方夾溝西方鴨圧湖에 潛伏中인것을 探知하고精銳部隊를 特히 出動시켜 該部落一帶에 密集中인 孫連仲麾下의 敗殘部隊와함께 該部落을粉碎消滅시켯다 其中○○機가 投下한 爆彈은 때마침逃亡하든乘用自動車에 命中되어 其中三名을 炎燒케하엿는데 其後의 情報를 綜合하면 第五十五軍長孫連仲은 空軍의 果敢한 進擊에 [illegible]

閑院若宮殿下 北中支戰에御參加

【北京二十一日發同盟】 太原陷落日 北支에 御到着하시사 [illegible] 閑院若宮春仁王殿下께서는 其後濟南攻略 山西肅淸 京漢線北段 徐州攻略等 北支 中支作戰에 全部御參加하시사 惶懼하옵시게도 一將校로 軍務에御精勵 [illegible] 校玉葉의 御體를 세우시사 敢然戰鬪를 御指揮하신 御英姿에는 [illegible] 殿下께서는 지난十七日 早朝부터 北京各機關을 御視察하신後 軍司令部에 行하시사 寺內最高指揮官과 御會議、午後零時二十分北京兵站病院에 行하시사 傷病兵에게 一一이 御仁慈하신 御慰問의 말씀을 賜하시면서 約三時間病室을 全部御慰問하시고 特히 御慰問品으로 金一封을 下賜하시고 더욱『將來忠勇將兵等 建設에 奮力하라』고 따로 金一封을 下賜하신바 將兵一同은 感激에넘치엿다 殿下께서는 正陽門城壁에서 古都의 夕陽裡에 萬里御聖戰에의 御感慨기프신 御模樣으로 拜察되는데 長期에 亘한御轉戰中 比類업는 御勇武 御英邁 御質素를 極하신 御日常은 實로 皇軍將校의 模範으로 御仰慕하는바이다 그리고 戰死傷者에 對하신 御仁慈에는 一同은 그저 感激하고잇는 形便이다

蘭封敵軍動搖 我軍揚堌集占領

【濟南二十一日發同盟】 隴海線을 猛擊中인我黃河渡河部隊는 二十一日 午前十一時兩地間의 中央部를 突破하야 蘭封南方揚堌集鎭(揚堌集西北十粁)를 占領하고 이作戰에잇서 蘭封杞縣의 連絡은 이미 動搖하는中이며 蘭封杞縣의 運命은 風前燈火로되어잇다

坂本荒鷲部隊 徐州南方을爆擊

【濟南二十日發同盟】 陸의荒鷲坂本部隊는 十九日午前中後二回에 亘하야 徐州東南方十五粁의 潘塘鎭、張圩及 失山附近을 空襲하야 高射機關銃陣을沈黙케하고 敵을發見하는대로 爆擊하야 [illegible]는敵五千 馬匹二千 軍用車八百에大打擊을 與하엿다 失山附近에서友軍一機는 機關部에 敵의 機銃彈을마첫스나 多幸히 徐州西方飛行場으로 無事着陸하엿다 一方 高橋部隊는徐州東南及東北地區에서 頑强히 抵抗하는敵에게猛襲을 敢行하엿다

루大統領

빈슨氏要求額에 八百萬弗을追加
루大統領建艦要求內容

【華盛頓二十日發同盟】 下院海軍委員長빈슨氏는 新海軍擴充法에 基하야 第一年度建艦起工費로서 一千一百萬弗의 支出을 議會에 要求하는 旨의 聲明을 發하는 同時에 루즈벨트大統領은 이와倂行하야 二十日下院議長[illegible]氏에게 書翰을 보내여 빈슨氏의 起工費보다 다시 八百萬弗을더하야 合計二千三百八十七萬五千弗의 新起工費의 整備費의 支出을要請하엿다 第一年度建艦은 빈슨委員長이 提案한 全種目을 網羅한 外에 다시 補助艦一隻 航空基地改善費를 包含하고잇다 루즈벨트大統領의 建艦要求는 左와如하다

一、航空母艦一隻 乙級巡洋艦一隻、補助艦艇十隻

內譯
大型水上機母艦一隻
小型水上機母艦二隻
驅逐艦母艦一隻
水雷敷設艦一隻
掃海艇一隻
油送船二隻
艦隊用艦二隻
一、驅動機四臺付哨戒艇九隻
一、實驗用快速小型水雷艇若干隻
一、航空船一隻
一、加州메어아이랜드海軍工廠 필라델피아海軍工廠을 含한 海軍工廠의 改善費

徐州諸戰線에서 敵軍損害甚大
曹州戰에만死傷二萬

【北京二十一日發同盟】 徐州攻略戰의 各戰線에서 敵의損害는 甚大하야 黃河渡河를 敢行하고 曹州를攻略한 ○○部隊의 戰果에 表한損害는 目下判明된것만도 遺棄死體約六千 死傷合二萬으로推定되고 其他各戰線에잇서 猛爆을맛고 넘어진 敵도만허 徐州會戰全般에亘하야 敵의損害는 莫大한數에達하리라고 觀測된다 이에比하야 我方의損害는 極히輕微하다

【徐州二十一日發同盟】 覇王山으로부터 徐州에至하는 所謂徐州城攻防戰에서 我軍北狹擊軍과交戰한 敵兵은 九千으로 그中四千은 完全히 滅되고 其他는거의 重輕傷을 입엇스며 或은武器를 일허 戰鬪力을喪失하여잇다 多數의 鹵獲兵器、彈藥、食糧等을 獲한것이 實로 多數에 達하엿다

徐州敵을猛擊中

【北京二十一日發同盟】 徐州脫出의 敵軍에 對하야 我○○部隊는 二十日夕刻부터 徐州東方約六里의地點에서 猛烈한 追擊戰을 開始하야 二十一日來 前面의高地에 依據한敵을 猛擊中 敵도頑强히抵抗하야 砲擊이益益猛烈하다

辭令

總督府辭令(二十日附)
淺原 豐亮
任總督府判事(七等) 補大邱地方法院判事 鈴木隆策
任總督府判事(七等) 補全州地方法院判事 佐佐木秀雄
任總督府判事(七等) 補京城地方法院判事 藤田擧
(同) 補新義州地方法院判事兼平壤地方法院判事
(同) 福島 次郎
任總督府判事(七等) 補釜山地方法院判事
(同) 花園 擧
任總督府檢事(七等) 補京城地方法院檢事

大運河渡河部隊 宿縣南方에進出

【濟南二十日發同盟】 徐州城附近에서 東南方으로 敗走하는敵을 一擧에 捕捉하고저 急追中인大運河渡河 各部隊는 二十日午後二時 津浦線宿縣南方地區에 進出하야 다시 猛進하는中이다

炎熱嶮路를冒하고 敗走敵을猛追擊
敵退路發見에血眼

【上海二十一日發同盟】 徐州陷落으로 徐州東方地區의 敵兵은 모든方面에서 形勢不利하게되어 바야흐로 其退路를 發見하기에血眼이되어잇다 이미 王棉鎭을 南下한 ○○部隊는 宿縣의 山岳地帶로부터 逃走하여온 그러고 ○○部隊는 徐州方面의 陣地를 버리고夾溝附近의 高地를 거처 永城宿城方面에 脫出을 圖하고저 努力하고잇다 我○○部隊는 敵을 一層決定的으로 하기爲하야 炎熱을 冒하고 敗敵을 猛追或은 急迫 或은 迂回하야 其退路를 遮斷하는等 不眠不休의 活動을 續行하고잇다 卽 지난 十八日宿縣을 占領한部隊[illegible] 村、西馬等 部隊는 十九日夾溝를 突破하고 一方 田上、石井部隊는 十九日目 宿縣으로부터 津浦線 西方地上에 向하야 山路를돌아 蕭縣方面에進出하야 모두 北方으로부터 敗走하여 오는 敵에 備하엿다 그리고 徐州를 陷落케하고는 瞬時의쉬임도 업시 二十日 또 突進을 세운 ○○部隊 [illegible] 河北省第一線部隊는 南方으로 進擊 徐州南方三里의 二陳集東西線에 進出하야 快速으로써 敵을急追하는中이다 그리고 지난 十六日 蕭縣을 占領하야 徐州를 攻擊中인 伊佐、脇坂各部隊의 一部는 瞬田으로부터 三堡方面에進出 其一部는 다시 [illegible] 方山地로부터 南方으로 迂回하야 敵의 退路를 遮斷하기에 努力하고잇다

夾溝桃山集占領

【○○二十一日發同盟】 二十一日午後一時 ○○部隊는 津浦線의 要衝 夾溝(徐州南方五十粁)를 占領하엿다

【桃山集二十一日發同盟】 徐州에入城한○○部隊는 休養할餘暇도 업시 二十一日曉 다시 前進을 開始하야 同日拂曉六時徐州 南方 桃山集에 集結中인 敵約四千을 急襲하야 殲滅的 打擊을 與하고 同地를 占領하고 午後四時에는 桃山集南方附近을 占領하엿다 그리고 桃山集에 敵의 遺棄死體가 約五百이잇섯다 그리고 桃山集은 敵의 兵站基地이 되어잇든 關係上 武器彈藥食糧을 多數로 鹵獲하엿다

人事·集會

◀李鍾麟氏(天道敎會大宗司長) 歿 [illegible] 今朝京城驛發 黃海道에
◀朴陽信氏(同宗務員)同上

陸荒鷲隊의活躍

【○○基地에서二十一日同盟特派員發】 開始되자 [illegible] 村인 [illegible] 其優先는 어미決定的으로 ○○基地의 出動으로되여잇다 陸軍飛行隊田中、藤崎 前島 衣川 紅宮 上田 竹田各部隊의 荒鷲○○機는 今日午前七時에 大擧出動 一擧에 ○○基地를 飛立 徐州南方山嶺地帶上空에 나타나 山嶺陣地及 溪谷에 潛伏한 敗殘敵大部隊에 對하야 猛烈한 反復爆擊을 敢行하엿다 이날 河北의날세는 맑게개여서 我荒鷲의 投彈은 確實無比 全彈命中 岩石과함께 뛰어 오르는 敵兵 파리와가티 逃亡하는 敗殘兵그外에 包圍線으로 壓縮하는地上部隊의猛烈한 銃砲火等 江北의 濕地及 山岳地帶의 大殲滅戰은 大平原을 흔들어 爆彈炸裂의 銃砲擊中에 多大한成果를거두고잇다

李品仙麾下敵軍 廬州奪還을計畫

【上海二十一日發同盟】 去十四日廬州를 占領한 我中野、古賀等各部隊의 大部分은 이미隴海線方面으로北上하고主力은雨後의攻擊을 準備中인바 廬州를 放棄한 敵第四十一、第四十八師는廬州西北方의 三義集、豐樂集、方亭、金橋鎭附近으로 退却하야 數面及廬州、六安中間에 잇는 官亭附近에 出動하여 陣地를 構築하고 我進攻을 準備하고잇다 그리고 徐州陷落에 依하야 敵도 이 方面의 軍事的重要性에 鑑하야 이 方面의 總指揮者인 第五戰區副司令 李品仙은 我部隊가 壽州를 占領한 隴海方面으로 作戰하리라고 判斷하고 第二十七集團軍長楊森麾下의 第百三十二及 第百三十師를 四南師로하여금 廬州를奪還하려 그作戰計畫에 依하면 [illegible] 安地區의 陣地를 固守하고 舒城東側旣設陣地及 三河鎭을 固守하야새로動員을 意圖할模樣이다

某部隊徐州入城

【徐州에서廿一日同盟特派員發】 津浦線 東方地區를 破竹之勢로 南下中인 ○○部隊는 二十一日午前九時十分 徐州에 到着하고 地上部隊의 主力도 午後三時 徐州에 入城을終了하엿다

靜岡春繭標準掛目

【靜岡電話同盟】 靜岡縣繭價協定委員會는 二十一日 今年春繭의 標準掛目을 左와如히 決定하엿다 白繭三十四掛 黃繭三十掛五分

總督府今年度視學委員發令

總督府에서는 主로中等學校의 學事狀況을 視察하기爲하야 今年度 視學委員을 左와如히決定하고 廿一日附로 發令하엿다
國語 城大敎授 高木市之助
歷史 同 大谷勝眞
學校衛生 同 水島治夫
理科(博物) 城大豫科敎授 森爲三
理科(物理、化學)城大敎授 津田榮
實業(商業) 高商敎授 西原峰次郎
學校衛生 京醫專敎授 成田夫介
命昭和十三年度視學委員 以外에 實業(農業)에 八尋生男氏를 囑託으로 任命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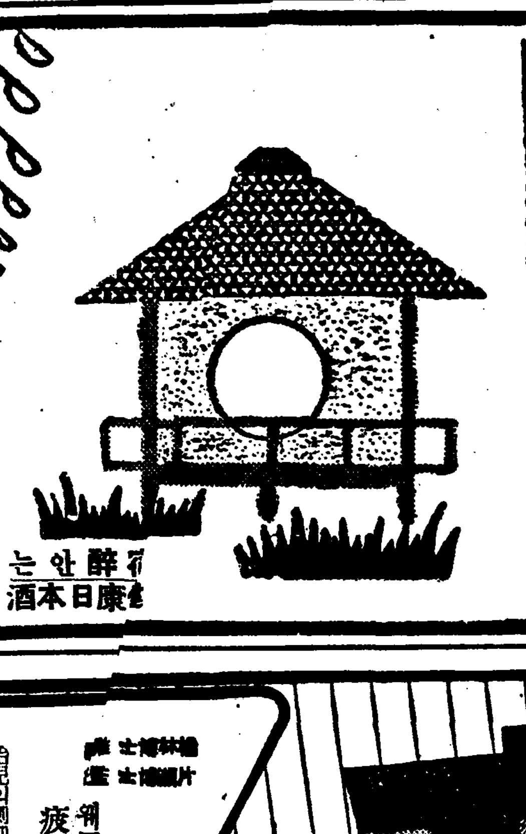
本社參觀

◀枇峴小學校生徒五五名 金龍燮氏引率下에

まらが 赤毛染
모처럼한化粧도! 머리가노래서는제로입니다
ナイス는머리감지안어도곳까마케들고빗이안벗고머리가마음대로됩니다
아름다운黑髮로드러지는
ナイス (나이스)
(赤箱二十五錢)
各地藥房化粧品店にあり

創立 明治三十二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出張所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三千浦、統營、馬山、鎭海、釜山本町、同牧の島、同富平町、蔚山、方魚津、元山、永興、咸興、端川、惠山、吉州、羅南、淸津、會寧、沙里院、載寧、信川、平壤、同大同門、鎭南浦、定州、新義州

高級 アイスケーキ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新品、中古品(新品同樣品有함)
型錄進呈。製造營業秘法傳授
釜山府大廳町通り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理研淸酒 新世界
五月의歡喜!
빗나는麗酒에
넘치는快味
醉안는 康日本酒
大鮮釀造株式會社

腫症仙藥 趙膏藥

누가아무런말하거나 종기어면반드시『도고약』을부치십시요 성종후부치여합창이예르고 종기세초에부치면 곳가라안습니다 나어서흔적업시곱게안그는것도『도고약』아니고는 볼수업는특장이올시다
效能
○모든부스럼 ○모든종 ○유종 ○담종 ○연주창 ○옴 ○귀밋헤나는데 ○명울슨데 ○나장어혈 ○젼배요통 ○외치두멍종 ○동이설초힘
【藥價】五錢、十錢、二十錢
發賣元 天一藥房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安産 爲하야
와다칼슘
ワダカルシューム錠
母體는 疲弊증구!
胎兒의猛烈한 칼슘要求와食物에서의 칼슘攝取不足은必然的으로 母體를疲弊케하고 姙娠中에多發하는母子體의諸種疾病은 實로여기에重大한原因을 가지고잇슴은 醫學界의認定하는바입니다 大阪帝大敎授片瀨博士는 多年이研究에 沒頭하야 母體의칼슘攝取에依하야 姙娠分娩이 安全히經過하고 또授乳期에 偶發하는 母子體의 疾病을 豫防하고 乳質을佳良케한다는것을實驗햇는데 ワタカルシュームの야말로 諸姙婦에必要不可缺의 常備藥입니다
片瀨博士著『姙産婦のために』呈進
大阪道修町 和田卯助商店

細雨中에 歡聲爆發 燈波全市에 輝煌

五萬名學徒群大動員

徐州陷落祝賀提燈行列盛觀

—사진上은 총독부정문에나오는 제등행렬(提燈行列)을 남부의만세행진(下)은 축하행렬을 파하는광경—

이십일대망의 서주는드디어함락되엿다! 이첩보에작약하는조선인천사백만 민중의 환희는최고조에 달하엿다 경성시내에서는 이역사적함락을 성심으로 축하하기위하야 이십일일 오후한시부터 전시의 오만 소학생이 부북, 남부, 서부, 동부등 산영등포의 각방면으로 남호아 기행열을 하엿거니와 밤에는비가부슬부슬 나리는데도 불구하고 일곱시반부터 전시내 각소학교 남자중등전문학생도 오만명이 손과손에 등불을 켜들고 전시를 거리마다 황군의 무운장구를 마음으로 빌며 행진하고 동열시 대성황리에 렬사적봉축제등행열을 무사히 맛첫다

李王職서도 祝賀會 祝宴도열어

이십일일 이왕직(李王職)에서는 조전장관(篠田長官)이하 직원이 창덕궁(昌德宮)아페에 열석잇는 시민의 애국행진에 답례한다음 오후세시부터 인정전(仁政殿)에서 열린직원축하회에 임석하엿는데 장관으로부터 축복할만한 전승의 깃봄을나누는동시에 희생자의 영령에대하야 정성을드리고기쁨도다시 성전출사(聖戰出師)의 대목적달성에힘쓸국민의각오에대하야강조한후 이어서 천황폐하(天皇陛下)와 해군의 만세를 삼창하고 아전요리의 축연을시작하얏다 그러고 창덕궁방호단(防護團)에서는 단원백여명이 경성부청의 기행렬과 제등행렬에 참가하야축하를표시하엿다

祝酒贈呈 在營軍人도招待

경성군사후원연맹(京城軍事後援聯盟)에서는 경성에잇는 제부대(諸部隊)에게 이십일일축주(祝酒)를 증정하야 서주(徐州)함락의 축의를 표시하고 또이십오일에는 재영(在營)제군인을 부민관에 초대하야 석정(石井)『미도리』양의 무용회를 개최하고 위안을 하기로하엿다

仁川府民大動員 旗行列을擧行 밤에는提燈行列

【仁川】 서주(徐州)함락을 축하하기위하야 인천에서도 십만부민의 총동원으로 지난이십일일 오후두시반부터 시내각소학생이 만명의 성대한 기행열이잇섯고 오후여덜시부터는 중의생을 비롯하야 각경회청년단기타 시민의열광적 제등행렬이 잇섯다 한다

兩總長宮殿下와 陸海軍關係者에祝電 廿一日佐伯京城府尹이

좌백(佐伯)경성부윤은 칠십만부민을대표하야 이십일일 참모총장궁전하(參謀總長宮殿下) 군령부총장궁전하(軍令部總長宮殿下)와 해군대신과 현지육해군최고지휘관과 ○○부대장에게 축의와 사의를겸한 전보를 띄웟다

研磨의功燦然 提琴家安柄昭君還鄕

滯獨六年만에今朝京城驛歸着

…安柄昭君…

【安州에서新義州特派員金明奎電話】 조선의 음악계를 빗나게하고저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에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가슴에 안고 독일에건너가『바이오린』의 연구를하던 우리의 청년제금가 안병소(安柄昭)군은 금이십일일 오전세시 경성역착『히까리』로 금의환향을 하엿는데 이십일일 오후차중으로 마중나간 기자에게 다음과가티 말한다

그동안 독일에 건너가 이만큼공을 차흔것은 오직 고향에게신여러분의 은덕으로 밋고감사하는바입니다 제가 독일잇는 동안에는 세계에일홈이멸친대 제금가『웰리헤-쓰』씨에게 이년간 개인교수를바덧스며 독일국립음악대학에 재학중에도 여러동무들의 지지를바더 동대학교기관『오-케스트라』에도 여러번 출연하여보앗습니다 그리고악기(바이오린) 제작에도 연구를 하엿는데『팔크나이트리슨』재번에 자신을 어더가지고독일회사에서 제작중입니다。귀국은맥칠전에 벌써되엿슬것이나『모스코-』에서 여행권관계로다소늦저고 만소국경에서는 소련관헌들의 간청으로 한이십분동안 연주한일도 잇섯습니다』

그리고 안군은귀국후동경과 경성에서독주회를 열리라한다

自轉車運動界의霸者 男裝의美少女自殺

古市町天理學園三年生으로 怪·失踪七日에溺死體로漂着

榮譽를말하는 優勝旗도無光

신록이지러가는 오월하순 지난 하롯날 장충단에서 열렷던 전조선자전차대회에서 여자선수권을 획득하고 남장(男裝)의 미소녀로 유명하던 열여섯살의제복의처녀가원인모를 자살을하엿다(사진은 이소녀)

시내고시정(古市町) 십오번지 천리교학원(天理敎學園) 삼년생 이운옥(李雲玉)(一六)양은 지난구일밤열시반에 학교기숙사에서청엽정(靑葉町) 구십오번지 그의오빠 이운봉(李雲鳳)(二三)씨집에다녀오다고 나간뒤 행방이묘연하야 의문의 실종을 하게되엿다 그리하야 그의오빠가 경찰에수사원을 제출하고종적을탐지하던중 뜻밧게도지난십오일오후다섯시쯤되여 한강인도교미테그의 자살시체가 표착된원인모를 사건이생기엿다

이운옥양은 어려서부터 자전차를 잘탈뿐아니라 언제던지사내복색을하고 다니며 씩씩하야 전조선자전차대회에서 해마다여자선수권을 획득하는 명물처녀엿다 금년에도 오월초하룻날경성운동장에서 자전차대회에 선수권을 획득하야 우승기를탓스며 그동안 아모런 자살할만한 원인이 어섯슬뿐아니라 장래에비행사가 되겟다고 입버릇처럼말해오던 명랑한 처녀로써 선생들과 동무들의 귀염을 한몸에모으고잇섯스므로 원인을 전연알수업다

더욱 이양은 우승기를 타가지고오는길로기념사진을 찍엇는데 사진도 찻지안흔채 가엽게도 세상을 떠난것이다하여 세상에의문의 화제를 던지고잇다

學院當局談

천리교 학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가티말한다

『그처럼 명랑하고 진실한 아이가 자살할줄은 꿈에도생각지어덧습니다 그날밤에도 오빠집에 간다고 나간뒤 그이튼날이되여도 도라오지안흐므로 청엽정으로 기별하엿더니 거기에잇지안흠을 알고실종한줄알앗습니다 학교일이나 기숙사일을 주번하고 착실하게보는데 정말 여러사람의 칭찬을바덧든터입니다』

少女의오빠 李雲鳳氏談

청엽정그의 오빠 이운봉(李雲鳳)씨를 차즈니 그는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가티말한다

운옥(雲玉)이는 자전차를잘 타고 사내처럼 씩씩 하엿습니다 제가천리교교사의직에잇스므로 그에는 천리교의 경성교리소장이며 저의은사이암전씨에게 맛겨서 학교에서도 늘친을 밧고잇섯습니다 구일밤에 오빠가 보구시퍼서 다니러왓다하고 저의집을 다녀간후 그것이 마지막길이엿나봅니다 비행사가 되겟다고하던그에게 그모양으로 죽을줄은 꿈에도 생각지못햇스며원인은 모르겟스나 원체아버지를 그리워하던바이니 아버지 제사가 이달이라 여기에 어떤사정이 잇지나 안햇슬까요? 우승기를 타가지고 사진을찍엇다는데 찻지도안코 죽엇스니 어느사진관인지 차저보아야겟습니다 그사진이라도 손에 드러왓스면 하고잇습니다

그리고 더욱 사진을 찍엇다는말을듯고 그의 학교친척사진관을 기자가 차저다닌결과 우승기를 들고 찍엇다는 눈물의사진을 남대문통 세부란스병원압 모사진관에서 발견하야 그의오빠에게 전해주엇다

빨래하는女人에게暴行未遂

시내신당정(新堂町) 사백사십칠번지의주호에 사는 김연원(金鍊元)(二二)은 이십일 오후두시경에 시내 한남정(漢南町) 산십번지 약초관음당(若草觀音堂)압 개천에서 빨래하는 시내황금정(黃金町) 이정목 이십칠번지사는 정순랑(鄭順娘)의 안해 김산월(金山月)(三二)에게 별안간달려들어 폭행을감행하려다가 통행인에게 발견되여 동서로넘기여와다고한다 어자는 번래적성질을가진 불량자로 취조에따라 여죄가 상당히만흘것으로 목하엄중취조중이다

狂人의慘劇 二十八名射殺

岡山縣下의大慘事

【岡山發同盟】 강산현점전군서가무촌대자행중(岡山縣苫田郡西加茂村大字行重)에사는 도정목부(都井睦夫)(二二)는 이십일일오전두시사십분경에 돌연히 정신에 이상이 생기어 엽총을 가지고 한동리에 사는사람들을 쏘아 죽이고 또다시 중상자두명과, 경상자두명을 내인후 산속으로 도피를하엿다는데 이급보를들은 강산현경찰부에서는 총동원하야 산을뒤저 범인을 수사하는중이라한다

총딱

▲며칠전 새까맛게 늙어빠진 봇짐태걸렷든 창의문(彰義門)밧 문루우의 제이채동지(蔡同知)란 늙은이는 ▲그후 소문좀 높아 경찰서에 불려가 면허업시 의생질을 한다고 톡톡한 꾸지람을 듯고는 고만풀려나서 ▲그날부터 인술(仁術)이지 뭔지를 보따리에 싸질머지고 간데온데 업서지고말엇다 ▲그래 이미친늙은이가 어데로 갓나? 했더니 이필종보며▲작금 두어달동안 마치와 정에 만이짐들을 풀고 자문바둘바디길을 닥는다고 종일 뚝닥뚝닥! ▲그것은 왜 그리 열심으로 닥느냐? 고물으면▲허! 편작(扁鵲)과 화타(華佗)가튼 고명한 의술을 더구나 돈한푼 안밧고 베프는데 경찰이 금지하니▲할수업시 길닥는것으로나 대신 공덕을 세상에 편다고▲ 대체어떤늙은이가 미처도 분수가 잇지 무슨수로 자기혼자서 그런 험한길을 닥는담? ▲소위 의술이 고명하다는것도 여개방차야 ▲아직도늙은이가 그대로 잇는줄로만밋고 꼭두새벽부터이 늙은에게 병을보겟다고 몰려드렷다가 허탕치고 도리가는 남녀들이여 생각해보소!

盲啞教育機關의 施設擴充을圖謀

全般的으로擴大强化

남총독(南總督)은 조선의사회시설이 국히빈약함을유감으로알고 부임이래이에대한 완전충실을도모하고자 부단의노력을 거듭하야오든중인데 그중에도 특히맹아(盲啞)교육, 구제의시설이 더욱빈약함을 절실히느끼고 어에대한시설을 전반적으로 확대강화하기로 결정한후 얼마전에 이미각도지사에게통첩을발하엿다 그내용의 대개를보건대 현재조선에는 총독부경영인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가 오직맹아교육 구제의시설로되어 잇슬뿐이므로 다가튼맹아로도 이기관즉맹아들의 출세등용문인 제생원을 드러가라면 하늘에서별따기보다어려운형편이며 여간사람은 그관문을통과할도리가업다 그리하야 조선의맹아들은 그와가티『핸드캡』을바드면서도 구제, 교육의기관이 부족하야 항상 불구자의 우울한처지에서더 일층 번민을 느끼게된다

이에 남총독은 조선의사회시설중에도독히맹아구제교육시설이부족함을 최대의유감으로알고 이에대한시설을 전조선각도에서각자협력하야 이가련한불우한 처지에잇는 맹아들로하야금 그나마 행복의길을 잇도록하얏다

이리하야 조선의장님과 벙어리는 남총독의인자한방침에 의하야일대광명의세계를찻게되엇다 중이라고한다

大藏政務次官日鐵視察

【鎭南浦】 태전(太田)大藏政務次官은 당지 일본제철소(日本製鐵所)공장시설과 경제상황을시찰하기위하야 지난이십일 오후사시반에 본군천군수와 관공서 학교 공직자 각신문기자 출영리에 진남포(鎭南浦)로부터 당지에도착하엿다

遠客·比軍을制壓코 朝鮮軍堂堂連勝

三·五對一·五로滿場은熱狂또熱狂

本社後援 國際拳鬪盛況

극동권투계에서 가장오랜 역사와 전통을자랑하는 비률빈(比律賓)선발군을 마지하야 전조선아마츄어 권투연맹주최와 본사후원아래 열리는 국제대항권투의 대전은 이욱고 만도권투팬의 대망속에 이십일일 오후세시반부터 경성운동장 특설링에서 막을열엇다 『링』의사면『스탠드』를채운 삼천관중은 정각전부터 넘치는 흥분을 참지못하야 초조한시선은 폭풍전야와가튼 무거운 침묵에 싸이어『링』을노리고잇섯다 『오픈·게임』이 끗난다음 원두가 떠나갈듯한 우뢰가튼 박수와 환호리에 비률빈과 조선대표군이 씩씩한 적동색의용자를『링』우에 나타내이니 때는 오후네시삼십분 동대회서무위원 고봉오(高鳳梧)씨의사회로 입장식이열리어 국가제창이 잇슨후 동대회회장 고원훈(高元勳)각하로부터 개회사가잇섯고 내빈측을대표하야 려운형(呂運亨)선생의환영사에 뒤니어 양군주장의『페넌트』교환이 잇슨다음 선수일동을 대표하야 정봉현(鄭鳳鉉)군의 선서가 잇섯고 좌백(佐伯)경성부윤으로부터 기증한·비도군에게 보내는 기념품을 증정한후 양군감독『수-바-』·성의경(成義慶)양씨의 뜻기픈 악수가잇슨후 비률빈군을 대표하야『수-바-』감독의 답사로서 식을마치고 기다리던 경전은 열리엇다 플라이급의『페레리아』군은 오른손을 부상하야기권하니 양정모(梁政模)군이 부전승을하엿고 흥미의 초점인 밴담급의 김명석(金明錫)군과『빼로까』군의경기는 무승부로 마치엿다 페더-급의 정룡현(鄭龍鉉)군과『골도바』군의 대전은정군이 압도적 우세를보이며 케이오(KO)로 이겻스며 라이트급에는『비라칼바』군과 박순천(朴順天)군이 대치하야 공전의 열대혈전을 전개하야 각각으로변하는 전황은 실로 만장관중의 긴장한흥분으는 가슴을 더욱조리게하더니 드디여 무승부로마치엇다 이때에는 열려되던 가랑비도 씻슨듯이개이여 웰터-급의 이교면(李敎冕)군대『가부레라』군의 최종전이 열리어 양군분전끄테 이도한 백중의세를보이여 무승부로마치니 결국 삼점오대일점오로조선군이 또다시 개가를올렷다 경기가 끗난다음 본대회 회장으로부터 본사 방사장배(本社方社長盃)를조선군에게, 씨름협회기증의 우승배를 비률빈군에게 수여하고 기념할 국제대항전의막을 다치니 때는 오후여섯시십오분이엿다 (사진은 상으로부터 우승배수여식, 열광된관중, 백열된경기장면)

【풀라이級】 梁政模(東拳)…棄權 페레리아(나쇼날大學)

【밴담級】審判 井上鑛子男 金明錫(朝拳)無勝負 빼로까(가르코스俱)

▼…兩君自重하야 機를엿보고 잇드니 二分頃부터 金君右『혹크』와 左『스트레-트』로猛然攻擊에 나아가 빼君의『빠디-』를 加擊하니 빼君巧妙한『카운터-부로-』로 應戰하야 難兄難弟의 激戰을展開하야 滿場을 熱狂케 하드니 第二라운드부터 金君의 銳意的『력슈』에 빼君苦戰타가 라임어엿되니 審判은 無勝負를 宣言하엿스나『포인트』에 잇서서는 金君이 저옥이 리-드하고잇섯다

【페더-級】審判 金明坤 鄭鳳鉉(木浦) KO 골드바(比島隊拳)

▼…鄭君劈頭부터 猛烈히 攻擊하야 『코-너-』에 모라넛코『원투스트레-트』로 突擊하니 一時困難에 빠젓다가 第二라운드一分五十三秒에 鄭君의 右『스트레-트』를 턱에마저『따운』되엿는데 이는 鄭君의 鬪志에 勝을 顯하엿다

【라이트級】審判 金正學 朴順喆(東拳)無勝負 비라칼바

【웰터-級】審判 黃乙秀 李敎冕(靑拳)無勝負 가부레라(比島隊拳)

▲…가부레라君은 技術的으로 優勢하엿다 兩君의 打擊戰을 演하면서 無味乾燥한 『러브』업시 決定的『펀치』업시 無勝負의 게임을 마치니

◇以上과가티 三無勝負 朝鮮二勝 比島二敗로 競技規定에依하야 無勝負는 ○, 五點으로되여 結局三, 五對一, 五로 朝鮮軍이勝利하엿다

【오픈·게임】 姜俠石 判定 金仁俊 姜周禧 無勝負 辛昌永

比島拳鬪團一行 昨夜에歸國

比律賓拳鬪團一行은 朝鮮에서의 對戰을 마치고 昨二十一日午後十一時十分 京城驛發列車로 離京하엿는데 一行은 二十三日長崎出帆의 加茂丸으로 歸國의途에오를터이라한다

實業野球戰績

=實業野球리-그第七日의 殖銀, 府廳各一回戰은 二十一日 午後一時부터 龍山鐵道球場에서 開始된바 京電과 殖銀이 各勝하엿다

府廳 000000001 1
京電 00100001 2…1
殖銀 000200020 4
鐵道 000300000 4…3

六大學野球

東京六大學野球리-그의 早法, 立慶各一回戰은 二十一日午後零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擧行한바 早大와立敎가 各勝하엿다

法政 000000030 3
早大 00210001A 5…3
慶應 100000000 1
立敎 10100020A 4…1

大豫10 齒專3

朝鮮學生野球聯盟主催의 大學高專野球大會第一日의 大豫對齒專의第一回戰은 廿一日午前十時十五分부터 西畑(球), 芳賀, 花谷(壘)三氏審判아래 大豫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對三으로大豫軍이 快勝하엿다

◇投捕 (大豫)岩淵, 原—西井 (齒專)森內—高田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計
齒專	0	0	0	0	0	0	0	0	3	3
大豫	1	0	0	0	6	2	0	0	1	10

曆

▲五月二十二日(日曜)陰四月二十三日▲干支 甲寅▲日出五時二十分▲日入十九時四十一分▲日南中 十二時二十九分五十七秒▲滿潮 十四時二十一分▲月出零時二十四分▲月入 十一時五十六分▲滿潮(仁川)午前五分과 二十二時三十分

日曜講話

◇同胞教會 朝間 監理教復興의源泉 方肅氏
◇石橋禮拜堂 午前十一時『和合의福音』朴淵瑞氏
◇龍是寺 午前十一時 輪字品莊嚴法門 朴[illegible]氏

가정 부인의 위생

부인병에는 수술보다도 약을쓰는것이제일입니다

병원에가도낫지안코 다른약으로도낫지안는 부인병에는명지모를복용하고 완쾌하기가비랍니다 병원에서나 수술이라는것은비용도만히걸리고 위험할뿐만아니라 가정부인으로서는 남이다 병원에가기도어렵지만 병원에간다고어떠한병이든지 전부낫는것이아닙니다 또한 양약이나, 한약방에가면 근래에는여러가지약이만히 잇지만하나도 신용할만한것은업습니다 그러므로여러분가운데 그동안여러가지약을써보아도 병이낫지안코점점더심한고통을하시는분은 꼭한번 명지모를복용하기바랍니다 명지모는조선, 만주, 중국에서작고 작고주문이오고 서양각국서도주문이만히오는것은 두말할것업시 신용이잇고 약효가제일조타는증거입니다 그러므로지금까지명지모를써보지안흔분은 주저말고지금곳한번복용하시기바랍니다

월경불순을 무심히여이지 마십시오

자쳐일기가 따뜻해지는이때에는 무슨병이든지 생기기쉽지만 그중에도 특히 부인은 얼굴에화색이업고 두통현기가심하며 아래배도아프고 월경이불순하게되고 음부에서대하증이흐르는병증세로하야 애기를 못낫는수가제일만흐니 가정부인으로부터 녀까지라도 부인병이잘복되엿을때에는 어겻저것하실 七大박사가약효를증명하는 명지모를 복용하시기바랍니다 명지모는 복용한지二분만지나면 얼굴에화색이돌고 기분이조와질뿐만아니라 이약을복용한지하루이틀지나고, 일주일이주일이지나는동안에 확실한효과가나타나서 어떠한부인병이든지 곳질수가잇고 또한전부터 한약을만히쓰는 우리조선부인의체질에는 제일적당한약이라고밋슴니다 부인병은 고통이심하지안하도 병이됩서만 숭고집이되여잇는수가만흐니 이약을주문하야 복용하고자하는분은 우선열흘분 일주일동안이면 효과를 알수잇지만 한달가량은복용해보시는것이조흔줄로밋습니다 만일한달분을주문하엿다가 약효가조화서일주일동안에 병이근치되엿다하드래도 남는약을다른사람에게 주거나 필요업다고버리거나하지말고 한달동안은꼭꾸준히복용하시면 재발될염려도업고 몸이시조흔효과를어더서근치하고 귀여운애기를나실수잇스니 여러분께서명지모를 주문하야복용하고자하는분은 여러분의병세를죽일업시자세히적어서보내시고 약은맷칠분만적당하다하게 보내라고하시면 본포에서 여러분의병세를자세히보고 병세에제일적당한약을보내드립니다

대하증으로인하야 남편에게대할면목이업서

平壤 金○淑氏

처녀시대에는 아무것도모르고지내다가 몸단장을잘못하고 월경시에도조섭을잘못한탓으로 결혼전부터대하증이잇섯지마는 그때에는 동무에게 외롬으로 부끄러워서 말도못하고 혼자근심걱정을하며 지내든중에 결혼을 하고보니대하증은 점점더하야 냄새가심하니서 숨길내야숨길수업시 누구터지자 궁병이 잘복된것을 읽게되니 참말로지부모와 남편에게 대할면목이 업섯습니다

아!이처럼 대하증이 흐른고수족이 어름가티 냉하고 허리와아래배가아프고 밤낫으로신경하며 불면증으로 지내는 내가 명지모와『오기나구』를 한달동안 복용하고나니 지금은 씻슨듯이 나흔것을 감사하며 나는 시골구석에서부인병으로 고생을하는동무들에게도 이약을 권하고 지금 자랑합니다 지금도남편과 결혼당시에 대한 화자서 고통을하다가 남편이말삼하기를 그러면 감사장이라도 속히써서보내라고하기에 사실대로썻습니다。참으로 새는 술거고재미스러워 지내는 우리들! 신가정의재미를 맛보며 감사를드리나이다

婦人良藥 命之母

主効 月經不順 子宮出血 白帶下 赤帶下 手足冷症 下腹腰痛 頭痛肢氣 產前產後

藥價

命之母		오기나球	
六日分	一圓	八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廿七日分	三圓
卅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五圓

本舖 合資會社 笹岡省三藥房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 振替東京五○五○番 電話京橋一八八七番

今日이新聞

부인께서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려서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笹岡省三藥房으로 보내시는분에게 七大醫博士가 親切히指示하야 자세히쓴 婦人病自宅治療와 命之母의 說明書를 無代로 進呈하오니 하로바삐 申込하시기 바랍니다 이 婦人病自宅治療는 笹岡省三藥房에서 婦人에게 衛生智識을 普及식히기 爲하야 一般婦人에게 한권식거저 드리는것이니 藥을 請求하시기 바랍니다

一家一冊·朝鮮唯一의課外讀本 "少年"六月號집집마다大好評

『少年』六月號가나왓습니다 朝鮮서그중재미잇고그중안잣지-더군다나 이번六月號에는 다음과가튼幾多한內容外에『白假面』의 무서운 朴泰遠氏의 探偵小說『少年探偵王』이 실니다。한권에단 十錢!다팔리기전에 十部以上團體注文은二割引을하여한권에八錢式해드리고一年先金은一圓十錢에

★六月號內容★ ★科學畵報·五百億年후의 地球 와달(옴세三版) 理科·사람의시초(金哲洙)★植物·이달의꽃(李德鳳)★時事畵報·落下傘(옴세三版)★나사와달 (金復鎭)★海外·秦萬植·朴慶浩·李石薰·李克魯·白信愛) 이야기·미련한노인(金仁英)★이야기·참기내기(高暢在)★이야기 童謠·삼성伊 (張錫伊)★童話·솔이의 재미잇는童話 (張龍伊)★童謠 아버지와나(朴泳鎬)★新童謠·큰소리(金龍煥)★童謠·공룡이(沈亨涌)★冒險小說·선머슴 武男傳(史又蓉)★科學 나나?(鄭潤熹)★童話 讀本·잇병은와 (尹石重)★長篇 童謠·雜 伊(徐恒錫)★作曲 임금님의 부하들 (宋南憲)★童曲 集·별들이 聖歌·곤생(李東園)★讀本·聖別 童話 (金世亨)★童曲 小說·집으로 (玄德)★長篇 王女(李雲)★外 우리판을 (洪鍾仁)★ 讀本 少年讀樂★천리 問答★少年會議★ 同志★이바게도수 두루!一冊十錢

日報出版部發行

中部版

開城教育界初有義人 高漢鳳氏讚賀會
四百餘名參集으로盛大擧行

【開城】개성남녀중등학교 설립[illegible]비로 이십오만원을 내여노흔개성교육계의 은인 고한봉(高漢鳳)씨 찬하회(讚賀會)는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일[illegible] 중앙공원(中央公園)가덕정(嘉德亭)광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엿다 이날정각이되자 [illegible] 시가를 울리며 경축의 성호를 올리니 사회각방면 인사들도구름모히듯 무려사백여명이 참집하엿다 그런중에 찬하회의 밤은 봉고제(奉告祭)를 우선엄숙히거행한뒤 열리게되엿는데 개성송부윤(宋府尹)의 감격에찬 개회식사가잇자 고한봉씨로부터 겸양에넘치는 답사가 끗난뒤 일동은 축배를노피들어 「고한봉씨만세」「개성교육계만세」를 하고목이터지도록 고창하야 만세성은 개성전시를 뒤흔드럿다 그리고고회기에대한 감우에 축배를 주고밧다가 [illegible]시에야 무사폐회하엿다 (사진은 고한봉씨찬하회광경)

安靑學校全生徒 誠金모아서獻金

[illegible]

開城有隣館에 全氏千圓을寄附

【開城】개성의[illegible]씨등 [illegible] 부내남산정(南山町)[illegible] 무산가정의 자선사업기관으로 유린관(有隣館)을 건설해서 [illegible] 개관식(開館式)을 거행하고 취학못하는 무산아동을 모집하야 무료교양을 [illegible] 실비진찰등 여러가지로 [illegible] 원조하고잇는데 [illegible]

漢江船遊와水泳 取締條項決定！
男女間白沙場密會는徹底取締
龍山署萬全策樹立

대경성칠십만부민의 유일한여름피서장이며 노리터인 한강에 요사이 차차일기가 더워짐을딸아 홍진에시달린 부민들은 남녀로소할것업시 매일밤낫으로게속하여 몰려나가서 사람의물결을 이루고 요사이와서는 급작이 배노리하는사람이 늘게되엿다 그리고공유일십오일부터는 한강에일반공중욕장을 개장하기로되엿는데 아프로더욱한강으로사람이 만히몰려들게될것이다 이제한강에배노리가 만케되고 특히공중수영장이 개장됨에따라관할 룡산경찰서에서 일반에게대하야 풍기문제기타에대한 다음과가튼주의가잇슬터이다

▲배노리와수영에대하야

一、한강에는 뽀ー트가오백척모ー타뽀ー트와욧트등이 오십여척이잇스나 일요일이되면 이것으로부족된다

棄兒

[illegible]

考選教員七十名 六日間實際訓練
廿三日부터六個小校에配置
再試後六十名選定

초등교육확충계획이 십개년에서 오개년으로 단축되여 이때문에 개학한지 달포가 넘도록 교원보충의 길을일흔 경기도학무과에서는 여기에대한 응급편법으로 림시교원을 채용코저일반에 편내 남녀중등학교에 졸업생중에서 교원지원자를 추천해주도록 통첩하엿든바 일백오십여명의 지원자가잇섯슴으로 그중에서 신체검사와 구술시험으로 칠십명을 뽑기는 뽑앗스나 사범교육의 경로를 밟지못한 이들교원지원자들을 지금당장에 교단에 서게할수는업스므로 오는이십삼일부터 이십팔일까지 그전원을 부내여러소학교에 보내여서 거기서교수를 참관시키는한편 학급경영 사무 기타 학교경영 학교시설 사항에대한 예비지식을 엇도록 하게하리라는데 그배정(配定)은 다음과갓다

칠십명중에서 남자는 교동(校洞)효제(孝悌)미동(渼洞)죽첨(竹添)창경(昌慶)의 다섯소학교에난호아서 보내기로되엿고 녀자는 덕수(德壽)[illegible]소학교에 보내기로되엿는데 이일주간의 견습이끗나면 다시한번 시험을 보이여서 칠십명중에서 약륙십명만 뽑아서 교원으로 채용하기로확정하리라한다

虛弱兒童을爲하야 海上學校를開設
仁川海水浴場에서三週間
京城府의夏期計畫

국민체위향상(國民體位向上)이 노피제창되는 이때에 최근조사에의하면 조선아동소년의 체위가 유달리 낫븐것이 판명되고 특히 대도시의 초중등학교아동의 신체가 매우 허약한데일으로 경성부학무과에서는 작년하기방학때에도 부내초등학교아동중 허약아동을 부내 종암(鍾岩)소학교에서 림간학교(林間學校)를 실시하야 그 체위향상에 노력하엿거니와 금년에는 한층더 이에주력하고저 벌써금년도이부교육경제에 삼천사백칠십구원의 예산까지세워가지고 금년에는 부내이십구개 이부소학생도중 신체가허약한 학동약삼백명을 모집하야 인천(仁川)으로가서 삼주일동안 해변학교(海邊學校)를 열어 수해욕등으로 아동의신체를 단련하기로 되엿다고한다

을 설치할 필요가잇다하야 이[illegible] 강본(岡本) 허포(許抱)[illegible] 십일에 군당국에 진정하기로하고 진정위원으로 김종록(金鍾祿)등 오씨를 선정하엿다한다

거스름돈詐欺로 遠距離旅行

대판에서 시작하야 신경(新京)까지 가는사이에 연도각지에서 거스름돈 사기로 여비를써 오다가 노정(路程)의 반인 경성에서 그만 잡히고말엇다 ――

본적을 애원현(愛媛縣)에둔 산본장승(山本莊勝)(三[illegible])이라는자는 대판에서 약제사(藥劑師)시험에낙제된뒤 신경엘가랴고 하엿스나 여비가업스므로 자기가 약에대한 지식이 잇스믈 이용하야 대판에서 두곳의 약주문으로 거스름돈 사기를 한것으로 장도에오른 후 신호(神戶)에서두번 하관(下關) 대분(大分) 부산(釜山) 대구(大邱) 대전(大田)등 연도각도시에서 일류려관에 투숙하고 어느때에는 세탁소 어느때에는 의사 어느때에는 고물상등의 직업을 자칭하고 수십여회의 거스름돈사기를하되 [illegible] 거스름돈을 가지고오라하고 수백여원을 편취하얏는데 일주일전에 경성에드러와서 [illegible] 촌상(村上)여관에유숙하면서 시내[illegible] 산전(山田)약방에다가전화로 인단오십전어치를주문하되 자기는영정(榮井)소학교선생이므로 학교로 가저오라하고 골목어귀에 기다리고 섯다가 거스름돈 구원오십전을 바더가지고 [illegible] 다라나버린것을 위시하야 [illegible] 약방에 "미대바"라는 현자약을 주문하야 거스름돈을 사기하다가 종로서원에게 현장에서 [illegible]

安城郡下龍頭里 市場設置運動進捗

【安城】안성군공도면용두리(安城郡孔道面龍頭里)는 교통이 편리하고 물화의집산이 풍부하야 장족의 발전을 보고잇는터이데 그곳유지들이 공도면영회를 조직하야 시장설치를 맹렬히 운동하고잇다 동면영회에서는 지난십오일 오전아홉시부터 공도면사무소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시장설치인가신청을 본월내로 제출하도록 결의하는동시에 [illegible]

松都의撫奇 汗蒸記 (完)
開城支局 玄東炎記

耐熱勇士아니고는 汗蒸眞味를難驗
수종꾼은親切하나設備가陋醜
來客爲해改善必要

고열지옥가튼 토굴에서 몸을 이켜가지고나와서 거적자리에 눕고보면 유쾌청천(愉快晴天)의 쾌미를 느기는것이 한증이요 낙천한것이 천하일미(天下一味)를 맛보는것이 한증이라고 예찬하고시프나 이가튼진미에 접부치기는 좀처럼쉬운일이아니다 불가티 뜨거워도참어보겟다하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이업시 먹은르고한증욕에 뛰여드러갓다가는 큰곡패를 당하는것이다 필자는 작년봄에 중석미급한 친구에게 한증을권하다가 이가튼 봉변한일이잇다 그는 『독아니』에 드러가 다섯분도 못참고 『에그머니』소리를 치며 뛰여나오드니 불구덩이속에 사람을 태워죽이려고 끌고왓다고한다 [illegible]

「탕」을 수종꾼은 모르다마는 나『떼』가튼데가서 술야시 마서도 여급에게 일원이상 어울울아는것이 도회인의 [illegible] 하고 갈라하게된다 그러나 푼전일리에 다토아 돈을 모아온 개성사람들은 한증『떼이』에게 [illegible] 전체모라면 한달에 사오원이란 기아임금(飢餓賃金)을밧고 손님에게 때를밀어주고야담을 [illegible]

그러나 오늘의 한증탕들은 그 가튼 감사보은(感謝報恩)의 사회적정신이 결핍해잇는것이 유감인동시에 개성사회인의 보수적인습이라고본다

필자는 이상으로써 한증예찬은 그만하고 이번에는 오히려이와 반대의성질로 개성한증의 그 비위생적인 제반설비에 대하야 경영자들에게 불평의 화살을 번조아볼가한다

현재 부내에잇는 한증욕은 로써 오천장(溫泉場)과 [illegible](浴場)의 두군데 [illegible]

스면 조켓다 첫재 그모양까지도 [illegible] 그리고 옷벗어두는곳은 따로히 설치하야 손님의 [illegible]

(사진은 한증탕내부)

秀英學院에서 支那語講習會

[illegible]

運動競技

對遞信陸上戰에 鐵道軍優勝
七六對三九로

第二回鐵道局對遞信局陸上競技對抗戰은 二十一日午後二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兩軍入場式에 뒤이어百米레ー스로부터 開始된바 別項戰績과가티 五種目에亘하야 大會新記錄을 作成한끄테 鐵道軍이 各種目에 優勢하야結局七十六對三十九의 大差로 遞信軍을물리치고 優勝하엿다

【百米】1拓植(鐵)一一秒三 2光田(遞)一一秒三(以上大會新記錄) 3中川(鐵) 4萩野(遞)▲得點…鐵道六 遞信四

【千五百米】1中村(鐵)四分八秒一四(大會新記錄) 2吳東祐(鐵)四分一四秒 3朝倉(遞) 4韓翼震(遞)▲得點…鐵道七 遞信三

【投砲丸】1萩野(遞)一一米三二 2鹿內(鐵)一一米三〇 3時田(鐵)一一米一五 4永東(遞)一〇米七一▲得點…鐵道五 遞信五

【走高跳】1秋田(鐵)一米八〇 2鹿內(鐵)一米七五 3富田(鐵)一米七〇 4李常榮(遞)一米六四▲得點…鐵道九 遞信一

【四百米】1拓植(鐵)五三秒一 2李常榮(遞)五三秒五 3中村(鐵) 4光田(遞)▲得點…鐵道六 遞信四

【投圓盤】1時田(鐵)三八米一〇 2永東(遞)三七米八〇(以上大會新記錄) 3萩野(遞)三三米五五 4金鎭浚(鐵)三三米五〇▲得點…鐵道五 遞信五

【高障碍】1鹿內(鐵)一六秒(大會新記錄) 2李常榮(遞)一六秒三 3安達(遞) 4拓植(鐵)▲得點…鐵道五 遞信五

【棒高跳】1富田(鐵)三米八五 2秋田(鐵)三米六〇 3岩本(遞)三米五〇 4佐古(鐵)三米一〇▲得點…鐵道八 遞信二

【走幅跳】1鹿內(鐵)六米九一(大會新記錄) 2中川(鐵)六米四〇 3富田(鐵)六米三八 4光田(遞)六米三五▲得點…鐵道九 遞信一

【五千米】1吳東祐(鐵)一六分一秒四 2朝倉(遞)一六分五二秒四 3李民相(鐵) 4韓翼震(遞)▲得點…鐵道七 遞信三

【投槍】1西澤(遞)五二米三九 2富田(鐵)四六米七七 3時田(鐵)四三米五六 4萩野(遞)四三米四(?)▲得點…鐵道六 遞信四

【四百米繼走】1鐵道 四五秒七 2遞信 四五秒七▲得點…鐵道四 遞信一

【總得點】鐵道七六點 遞信三九點

對高商野球戰에 延專軍敗退

朝鮮學生野球聯盟主催의 大學高專野球大會第一日의 醫專對高工戰과 延專對高商의 各一回戰은 二十一日午後一時五分부터京城球場에서 열린바 다음과가튼『스코어』로 醫專이 七回까지 十五A對二로『리ー드』하야『콜드께임』으로 快勝하고 延專은 十四A對四의『콜드께임』으로敗退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高工	0	0	0	0	0	0	0	
醫專	2	6	1	0	5	1	A	(콜드께임) 15A…2

◇兩軍投捕=(醫專)森松ー寅月 (高工)直臘ー兒玉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延專	0	2	0	0	0	2	0	
高商	0	1	3	0	6	0	4	(콜드께임) 14A…4

【高商】 大塚8 門田19 長野2 濱澤3 梅津5 高本91 久保7 杉浦6 山緒4 打數30 安打9 三振2 犧打2 盜壘5 四球13 殘壘8 失策0

【延專】 尹75 崔4 黃51 李8 申2 朴17 石3 李9 鄭6 打數24 安打4 三振6 犧打0 盜壘0 四球5 殘壘3 失策3

大豫가法專을一蹴 學生蹴球리ー그戰

大學高專蹴球리ー그의 大豫對法專戰은 二十一日午後三時半부터 大豫球場에서 金成玗(主)朴昌滿、李斗衆(綠)三氏審判下에法專의[illegible] 열린바 三對零으로 大豫軍이 快勝하엿다한다

大豫3(1―0 2―0)0法專

今日의運動

▲庭球=第六回全朝鮮中等學校軟式庭球選手權大會 午前九時京城運動場코ー트(觀覽無料)

▲蹴球=學生蹴球聯盟主催 春期蹴球리ー그…藥專對普專(午後一時)醫專對普專(午後三時)以上全部京城帝大球場(觀覽無料)

▲卓球=京城卓球協會主催 第十三回學生團體實業團 卓球對抗戰 午前十時 京城帝大醫學部(觀覽無料)

▲野球=京城實業野球리ー그第八日(二回戰)…京電對府廳(午後一時)鐵道對殖銀(午後四時)龍山鐵道球場(觀覽料=내야四十錢、一般二十五錢、學生十錢、小學生五錢)◇京城中等學校野球聯盟主催 春期野球리ー그第一日…京商對龍中(午後一時)京師對善隣(午後四時)京城球場(觀覽無料)

▲運動會=普成中學校內陸上大運動會 午前八時 同校庭

特輯「父と子」…父と子との問題 東大教授 蠟山政道

母と子の問題に比し、閑却され勝ちな父と子の問題について時々と說き、凡ての人の胸にせまる必須味讀の珠玉篇。家庭內に於て如何に多くの重要にして困難な問題をはらんでゐる「父と子」の問題を、凡ゆる角度から檢討し、解剖し、家庭に贈る一大特輯とした。

百萬圓の婿を探す父……本誌記者
十人の子を育てあげた父……千田是也
父と子の對話……林達夫
對談會 父と子について……志賀直哉 里見弴

□幸福について(女性文化月報)……谷川徹三
□日本的教養について(女性時報)……山川菊榮
□禮儀と精神……東北大教授 山田孝雄
□電氣の國家管理案……三宅晴輝
□天長節と國家貯金……下村海南
□婦人と體育……野津謙
□ヨーロッパから東亞へ……米田實

(口繪)
◆土に生きる人たち(土)
◆南氷洋に鯨群を追つて……小屋勝之
◆新緑手染友禪紹介……婦人公論特選
◆わが師わが愛弟子を語る

六月特大號 日本發賣
婦人公論

思ひ出に生く……ユキ・モルガン
長塚節純愛物語……山內浩吉
文藝峰ロマンス……新居好子
呪ひの家の十四の少年 佛門に入る……眞鍋元之
赤帽子青帽子……志賀直哉

旅の手帖
□八束・妻の川……井伏鱒二
□初夏の山旅……田部重治
ナンガの悲劇……木暮理太郎
□晩春から初夏にかけての寫眞の撮り方……井深徹

職場の裏
白墨の誘惑……(女教員生活報告記)和泉耀子
剰餘の定理……(電話交換手生活報告記)山本よね
糸姫の悲哀……(女工生活報告記)勝股その
金の中から……(銀行女事務生活報告記)大町潤子
誘惑の手を逃れて……(タイピスト生活報告記)林きみ

□婦人公論健康相談……各科醫學博士
□婦人公論身の上相談……片山哲

☆大陸詩集……室生犀星
☆アヴィニヨンの狼……小島政二郎
☆神と人間との間……武者小路實篤

愛しきわが母(マダム・キユーリー自傳)……イーヴ・キユーリー
女醫の足跡(吉岡彌生自傳)……吉岡弥生
ルイ・パスツールの生涯(科學者の道)……醫學博士 林髞
シヤリアピンの生涯と藝術……中根宏
萬葉戀歌讀本……文學博士 釋迢空

魅力の探求
近衛文麿の魅力……山浦貫一
川端康成の魅力……高見順
崔承喜の魅力……光吉夏彌
原節子の魅力……吉屋信子
三木清の魅力……林達夫
甑右衛門の魅力……村山知義
前田山の魅力……尾崎士郎
鮎川義介の魅力……和田日出吉
原智惠子の魅力……野村光一

女一人の生活
☆白い壁との對話……嵯峨ゆき
☆夢を追ふて……平田ふみ
☆窓に映る男性の影……田上いく
☆感情の世界……北郷國子

女一人……島木健作

貧富禍福(醫師の診療簿より)……醫學博士 正木不如丘
探偵小說 刺靑天文解……木下宇陀兒
スター子寶自慢……サトウ・ハチロー ヨコヤマ・リウー
□神鎭ります護國の英靈の遺族に捧ぐ……陸軍大將 鈴木孝雄
□五色旗の表情(新生支那のその後)……高木健夫

事變と生活を語る日支女性現地座談會
(出席者) 錢木蘭、齋、趙、朱、金、沈(支那側) 喜野美惠子、辻照子、馬淵中佐、佐藤少尉、柳兵衛、大宅壯一

おもちやの世界
□玩具は子供の生活必需品です……永澤謙三
□赤ちやんの玩具……氏家壽子
□玩具を主題にした音樂……中根宏

□雨の日の服裝を語る……伊東茂平
□髪の毛の美容法……宋文江

廢物利用更生讀本 村上正雄

◆王克敏さまもつたお父様……山本支那子
◆お土産のないお父様……十河惠子
◆めつたに會へぬお父様……森三重子

子を貰ふ……下村千秋
◆五月のレコードから……あらえびす

學窓ロマンス
清國留學生……東京・高等女學校
支那に捧ぐ……東京・青山學院女子部
海のピアノ……廣島・鷹島女學校
神崎清

長篇連載小說
美しき世界……野上彌生子
女軍……獅子文六
薔薇の騎士……大佛次郎
向日葵娘……宇野千代
南風……林芙美子
我が愛の書……細田民樹
明治十四・五年頃……長谷川時雨
石狩少女……森田たま
牧歌……川端康成

★★★特價六十錢★

長篇小說

薄命 (5)

韓龍雲 作 / 鄭玄雄 畵

誘惑【五】

순영이는 시간도 늦저가고배도 고팟스므로 점심을 속히먹고도 시픗스나 어쩐지 점심보재기를 푸르고십지 아니하엿다 그리하야 보재기의 연이꽃을맛손으로 부들고

『점심을 아니먹어도 관계치안허요』

하고 고개를 숙인다

『안먹어도 관계찬타니 이때까지 일을하고서 배가 안고플리가잇나 내가 잇스니까 체면 차른드라고 그러니 어서 밥을먹어라 어디 밥은 무슨밥이고 반찬은 무엇이나 구경좀하자』

하는 송씨는 점심 보재기를 끌은다 순영이는 할수업시 보재기 잡엇든 손을 노흐면서

『밥이 아니예요』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이 붉어진다 송씨가 보재기를 펴노코 보니 그속에 잇는것은 찐감자몃개하고 나무입새에다 소금좀싼것하고 그것뿐이엇다。

『에구 이것감자뿐이로구나 이것만먹고서 어떠케끄니 룰의이니 반찬이라구는 소금뿐이고애구가엽기도해라사람이 여걸먹구서 사는구나그러나 여것이라도 어서먹어라』

하는 송씨는 두손으로 보재기의 양쪽귀를 잡아서 행여 감자가 동구러갈가 하고 조심스럽게 순영의 아프로다거놋는다

순영이는 무슨 비밀이나 들킨것처럼 부끄러웟스나 그러타고 아니먹을수도 업섯다

『그럼 먹겟서요』

하고 조금 주저하는 순영이는 감자 보재기를 조금 송씨의 아프로 미러노흐면서

『이것 하나 잡숴보세요』

하고 송씨를 처다본다

『오냐 네나어서 먹어라 나는 점심밥을 만히먹엇다 어서 물마시고 먹어라』

송씨는 정다웁게 말하엿다

『서울도 이런것이 잇서요?』

『잇구말구 지금은 서울이 시골보다 감자가 더흔하단다』

『서울도 감자가 잇서요!』

하는 순영이는 이상한드시 눈을 깜작어리다가 감자를 먹기 시작하엿다 순영이 감자에 소금을 찍어서 한입씩 먹는것이 별로 물도 자주마시지 아니하고 잠깐사이에 먹는다 송씨는 순영이가 하도 먹음직스럽게먹는것을 보고서 속으로 침을삼켜가며 보다가 다먹은뒤에

『너는 잘두먹는다 먹는것이 아주 복스럽다 사람이 그래야지 너는 알만해도 복을 만히 맛겟다』

순영이는 그말에는 대답을 하지아니하고서 점심보재기를 홀홀어서 게어노코 나무그림자 옴긴것을 다시 보더니

『저는 바틀매러 가야것서요』

하고 미안한드시 송씨를 보면서 일어선다

『웅 어서매여라 오늘 나때문에 시간이 늣젓구나 너 바틀 얼마매지 못햇다구 계모에게 걱정을 드르면 어쩌니 내가 바틀 맬줄알면 가치좀 매여주겟지만 나는 호미자루가 어디가 부튼줄도모르는사람이니까 맬수가잇나』

하는 송씨는 따라서 일어서더니 아까 산추나무에 걸녓든치마폭을 살펴보고 다시 그산추나무를 가리치면서

『저게 무슨나무가 저러케 흉악하게 생겻니?』

하고 순영이를 본다

『그게 산추나무여요』

순영이는 조금 우스면서 말하엿다

『산추나무? 나무두 망하게두 생겻다 허다한 나무에 어떠게 저따위로 생겻담 하기야 사람두 그런 것이야 너가러 악착한 사람은 나무로 일너두 조흔 꼿나무와 가튼 것이고 악착 못된 것은 저따위 나무와 가튼것이야 남의 계모노릇이나 하면서 전처자식에게 심하게 구는것이 다 저러케 가시가 도처서 남의 치마나 찌저놋는 놈의 나무와 마찬가지지 산추나무가 무슨 산추나무야 개추나무라던지 돼지추나무라던지 하지』

하는 송씨는 골을 내면서 흘겨보는 눈으로 산추나무를 본다 순영이는 송씨가 산추나무를 보고 성내고 욕하는것이 여간 오숩지 아니하엿다 도라서서 소리업시 웃다가 호미를 가지고 바트로 도러가서 부지런히 바틀매엿다 송씨는 한참이나 서서 순영의 밧매는것을 보다가 내일이만때 도오겟다고 하고서 몃번이나 도라보면서 어디론지 가버렷다

『聖峰映畵園第二回作品』 "아버지"로決定

議政府스타지오도完成되여

성봉영화원(聖峰映畵園)에서는 제이회작품으로 부성애를 취급한 이규환(李圭煥)씨원작『아버지』를 제작하기로되엿다 이번 동영화원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신축중이든 촬영소가 완성되엿기때문에 금후는 동경(東京)까지 가지안터래도 작품완성할수잇게되엿다한다 감독으로는 나그네를 제작한 이규환(李圭煥)씨가 담당할것이요 촬영은 양세웅(梁世雄)씨가 맛기로되엿다

스태프

聖峰映畵園第二回特作
天一興業社企畵部提供
全發聲『아버지』
原作、演出 李圭煥
脚色 秦友星
撮影 梁世雄
出演俳優——
王平 金漢 獨銀麒 朴齊行
朴舞鳴 文東一 朴仁順 崔順禮
文藝峰

라듸오

JODK

라듸오・드라마 소나비오든날 (二十二日午後八時半)

—全二幕 金永壽原作— 劇研座

◆…그날은 아침부터 소낙비가왓습니다 설직중에잇는 남편박군은 벌서여러날을재리노코 깨우는그안해의 설화가른재촉에 겨우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해의푸념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운때에 자저 오깃은 안해의 엣날동창경순(庚順)입니다 학교 시절에는 다가튼벗이엇건만 한편학교를 나온 뒤에는 피차의 생활은 여간달러진것이아닙니다 하나는설직자의안해 하나는 터터한가정에서워어빗는주부—안해는자기도자기려니와 委생이 미구한 뱃속의 어린것을 생각할때에 도저히 그남편을맛고 지낼수업게 되엿습니다。어리하야 그남편에게 마지막 선언『생활이 업는 사랑이업다』를 포고하고 집을나간안해는 결국 엇지되엿슬든가?

라듸오小說 어머니의所願 (二十二日午後一時一五分)

劇團藝術座 崔 仙

◇…朴氏는 金박사의소실입니다 소실임으로 자기의몸으로나흔아들 영근(英根)을 본부인에게빼앗기고 오로지 그아들의출세만을 그늘에서 빌고잇습니다 영근은 잘아서 사람의 죄를말하는 검사가되엿습니다 朴氏의 가쁨은 여간이아니엇습니다 또朴氏에게는 金박사와의 사랑의씨로 아미(愛美)라는 딸이잇섯습니다 아미도 조흔나이자라서 변호사현재(玄在)와 결혼을하엿습니다 그들의생활이잇스나 이러케복한것만 가뿐은 朴氏에게는 큰비극이생기게되는것입니다 아미가 결혼하기전그를 연모하든장식(張植)이라는자는 영근이 金박사의적자가 아니라 朴氏의몸에서나흔 서자이라는것을 알므로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랴고 합니다 이것을안 朴氏는 아들과남편의명예를 위하야 장식을 죽입니다 사형수로 법정에스게된朴氏 이것을재판하는 아들검사영근 사위변호사 현재…그해결을들어주십시요

어・린・이・時・間 (22日午後6時)

귀로듯는 하이킹 JODK 어린이係

푸른하늘 맑은공기 산들산들하는바람……요사이 이조흔시절에 『마이크』군이 여러분들을모시고 『하이킹』을가겟습니다。그러나 『마이크』군은 여러분다아시다시피 『스타디오』에서 밧그로뛰어나가지는못하는몸이라 하는수업시 귀(耳)로 『하이킹』을 하게되엿습니다。자—여러분 그러면은 『스피—카—』앞헤 귀를 기우려주십시요。시게가 여섯시를치면은 여러분은 활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을먹고 그리고 집을나가면은 전차 자동차 자전거소리가 들리는 거리를지나서 문밧그로 나가면은 개고리우는소리 어여쁜새의노래 멀리서 소우는소리 이러케 여러가지소리를 들으시면서 귀로듯는 『하이킹』을 질겨주십시요。

朝鮮聲樂研究會 第五回定期總會

朝鮮聲樂研究會에서는 來五月二十三日第五回定期總會를 開催한후 決算報告와 任員改選等을 行하리라고하는데 時日場所는다음과갓다

一、時日 五月二十三日午後一時
一、場所 市內益善町一五九同會館內

放送 二十二日(日曜)

◇正午(東)時報 伽倻琴倂唱 一、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沈淸歌 朴秋月 杖鼓 韓成俊
◇同一時 短簫獨奏 一、淸聲자진한닙 二、念佛 李炳祐
◇同一時一五分 라듸오小說『어머니의所願』—李蓬作 崔仙
◇同六時 귀로듯는하이킹—擬音公開— JODK어린이係
◇同六時二五分 修養의眞義 佛導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界面頭擧 二、弄 三、羽樂 四、還界樂 五、編 金美花 文明花 金相淳 金永根 金一宇 洋琴 大笒 杖鼓
◇同八時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金素姬 趙素玉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소낙비오든날』二景—金永壽作 人物 朴君 尹芳一 其妻 金福鎭 庚順 金映玉 母 姜貞愛 간난이 吳福童 劇研座 指揮 金永壽 效果 吳貞三
◇同九時 管絃樂(레코—드)
◇同一〇時一〇分 風習講座 田中德太郞

二十三日(月曜)

◇正午(時報) 레코드音樂
◇同一時一五分 衛生講座『日光浴을합시다』 城大衛生學敎室 朴容海
◇同六時 童話『화문석짜는王子』 秦金星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一) 京畿道農務課 權奇東
◇同八時(東) 피아노獨奏 마키심샤피로
◇同八時三〇分 野談 張志浩
◇同九時 民謠 一、開城八景 二、긴도라지 三、新調難逢歌 四、月夜船遊歌 五、군밤打鈴 六、淸淸江水 林錦順 李正心 閔亨植
◇同九時三〇分(東)時報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東)浪花節
◇午後六時(東)스켓치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東)講演
◇同八時(東)피아노
◇同八時三〇分(東)詩吟
◇同八時五五分(東)風景

살결을본바탕부터곱고희게만드는신발명약

사람의人情으로 깨끗한것과 어여쁨을 좋아합니다마는 어려분께서 자기만 가지고잇는 천성의어여쁨과 매력을 깨닷지못하시고 남과갓치되랴고 다만처장인 一時的분단장을 白粉 크림 좋은 연주분으로 하시고 게시나 명랑한 近代女性의 대범스러운 건강미를 그렇게하여가지고는 도저히 표현하실수없을것입니다 반드시 살결본바탕부터 곱고 희게만들어가지고 단장을 좋하도 늘어여쁨과 매력과 관엄없는 예묘를가지게하여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분을물론하고 고흔살결 히고도 어여쁜자체를타고낫으나 남여가고 해가지내는동안에 햇빛과 먼지등으로 피하조직의 색소층(色素層)이 검게 흐리게되야 얼골색이검어지고 피부영양이넘버저서 잔주름 죽은깨나 버짐 어드름 잡티가 생기게되며 혹은 분때 연독(鉛毒)등으로 거튼살결이되고만것인만큼 그렇게된 근본원인만 없새버린다면 도로깨끗하게됨니다

살결이 근본적으로 어여뿌게되시기를 바라든여러분! 그런걱정이모도해결되는 깁븐소식이잇읍니다 지금歐米각국의 美顔醫藥學界에서나 映畵界 社交界 女學生界에서 최고치료약으로승인을받고잇는「活性피로이도酸黃」에다가 동양인의살결에맛도록 특수피부영양재(홀몬)을배합한 强力美白素「레온洗顔크림」이世界的大發明되야 가정에서간단히 어여뿌게되실수잇게되엿읍니다

레온세안크림

분단장을않고라도 늘어여뿌게되는「레온洗顔크림」은 하로에두번 세수하시는사이에 三四分치로면되는약이어니 거문살결을근본적으로히게하고 살결을부드럽고 윤택나게하며 鉛毒을없사고 여드름 버짐 잔주름 거름께 죽은깨를속히다스릴뿐만아니라「맛사—지」의대용이되며 눈섭은黑耀石갓이검엇게되고 입술은산호빛이 물붓게만들여주는 新家庭美顔화장약입니다 명랑한新女性의향기와青春의꿈을어여쁜얼굴에서 찾어내도록하실處女時代 母性愛에넘치는매력을家庭의和平를위하야 보존하셔야될家庭婦人 직업상하는수없이분중독이되신職業婦人 여드름 거름께많은男子께서는 꼭本劑로근치식혀주십시요

하로빨리 자기만이가진 예여쁜살결을 도로찻으실여러분은 조곰도 주저마시고「레온洗顔크림」을 사용하시사 青春의우숨과 깁븜을 도로찻어주시기바람니다

약가—普通瓶(약한달분)一圓四十錢 德用瓶三圓四十錢이오며 全道有名한藥店 화장품점에서판매합니다만 매절된때에는 송료삼전(우표)을선송하시면 대금인환으로도송약하옵니다

통지하시는대로 조선국문으로된「新家庭美顔療法」이란귀중한책을 거저드림니다

東京市神田區小川町西三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レオン商會
振替東京八八一番

食事倍加 陽氣倍加 活動力倍加

人生의最大幸福은 돈보다도 地位名譽보다도 健康입니다 이러케 重要한 우리의健康을 倍加할수가잇다면 누구던지 千金을 앗기지안코 家產을傾하야 이藥을 살것입니다 人生의最高의希望과 目的은 食、色、活動인바 百補丸을 服用함으로써 이 三大生理作用이 倍加되난것은 本社가 크게 壯談하는것보다도

異口同聲으로

百補丸을 服用한분은 食事가느럿다 陽氣가 매우 조와젓다 무슨일에나 힘드는줄을모르겟다고 누구던지다갓치말합니다

萬人共讚의天下名藥

자랑하는百補丸의效力!

一、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形容이창백하고 全身이衰弱한분
一、性慾이줄고手足과 下초가 恒常濕冷하고肢節腰痛으로고생하는분
一、口味가업고 消化不良과 체증속병으로 고생하는분
一、肺가不足하고 元氣와活氣가업고 허리가압흐고 四肢가勞困한분
一、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무겁고 精神이흐리고 記憶力이不足한분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前兆이오니 一日速히 百補丸을服用하여 싹싹한青春이되시요
一、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一、消化不良、체증、속병가튼것은어느때업서젓는지 알지못하게 업서집니다
一、눈이밝어지고 精神이조와지고 皮膚가윤택하고 血色이조와집니다
一、全身五장六부를다잘補하야 참말 完全히陰陽雙補하야 體重이增加되고 陽氣가 大旺됩니다
一、過飮過色人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께는 더욱速効합니다
一、長久連服하면 精力絶倫하야 一生을無病健康한몸으로不老長壽할수잇슴니다
一、年久咳嗽와 오랜淋疾도消湯됩니다

百補丸

百補丸의世界的進出 米國에第一回特派員派遣

百補丸은 벌서 朝鮮과 日本內地안에서만의 靈藥이아니요 世界의靈藥이올시다 滿洲國과 中華民國은勿論 歐羅巴諸國과 南北米各國으로부터 注文이 遝至하는中이며 昨年以來 英、佛、米、伊、獨等 二十一個國에 百補丸輸出을 開始하얏스며 今般 또 第一次特派員을 北米에派遣하얏슴니다

勿失好機

朝鮮初有의大景品 締切 迫到!

本社總賣出 二十五萬圓의 百補丸 婦人百補丸大景品附大特賣는 發表以來 萬人의大歡迎裡에 締切이 迫到되엿슴니다 景品이 크기도 朝鮮第一이요 景品은 누구나 빠지지안코 다 타게되는 이런好機會를 일치말고 동가홍상이면 景品못는 이때 即時 注文服用하시기바람니다

조경포대

婦人百補丸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京城府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六二三番・三三〇番・振替五番